

3831.4  
34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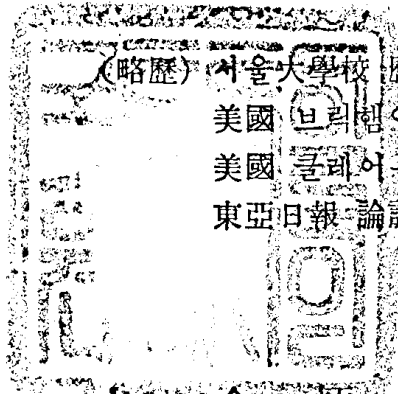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研究調查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關係一協商對備研究

# 美國의 對共協商事例 研究

미국대공협상  
미국대공국교섭  
"대공연구"

研究執筆責任 鄭 鎔 碩



(略歷) 서울大學校 歷史教育科卒, 碩士(1965)  
 美國 브릭햄 영大學校 大學院卒, 碩士(1966)  
 美國 클리어몬트大學院 國際政治學科卒, 博士(1970)  
 東亞日報 論說委員(1973~)

刊行責任 金 炳 元 (政策企劃室 補佐官)

##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目 次

第一部 中共과의 協商	3
I. 國·共協商의 背景	3
II. 聯政樹立 戰術	6
III. 周恩來의 協商術	11
IV. 特 徵	18
第二部 對蘇統韓協商	21
I. 모스크바協商과 美·蘇共同委	21
II. 對蘇유엔協商	25
III. 特 徵	29
第三部 休戰協商과 쿠바	32
I. 韓國休戰協商	32
II. 베트남休戰協商	36
III. 쿠바 미사일協商	41
IV. 特 徵	45
第四部 結 論	47
I. 合理的 思考方式의 취약점	47
II. 相對便의 本質誤判	47
III. 選挙意識	48

IV. 協商斗 友邦	50
V. 超強硬態度	51
第1部 註	53
第2部 註	53
第3部 註	54
※ 要約文	56

## 第一部 中共과의 協商

### I. 国·共 協商의 背景

世界 2次大戦에서 敗한후 北滿洲와 南部 廣東地域에서 日本이 敗退하게 되자 蔣介石 支配下の 国民党政府와 毛沢東주도하의 共產 党사이에는 서로 이지역을 장악하려는 爭奪戰이 再開되었다. 国府 軍은 기민한 美軍의 수송편의를 얻어 재빨리 主要都市와 東北部의 철도시설을 손에 넣었고, 中共軍은 北中国과 滿洲地域의 村落을 점 거하고 맞섰다.

1937년 中日戰爭이 벌어지며 対日 항쟁기치아래 임시 이뤄졌던 国·共間의 聯合戰線은 終戰과 동시에 깨지고 말았다. 원래 国· 共연합전선은 출발부터 불안한 것이었다. 兩派모두 日本을 몰아낸 다음에는 中国대륙의 獨点的인 支配를 위해 서로 맞붙어 쟁탈전을 또 다시 벌이게 되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계로 国府軍과 中共軍은 対日戰線에서 作戰上의 協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 兩軍은 그대신 각기 점령지역에서 自己勢力 부식에만 신경을 쏟았다. 共產軍이 점령구역을 擴大하면 国府軍은 이를 봉쇄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견제하려고 기도하였다. 따라서 国·共間의 戰鬪는 兩側 聯合戰線이 이뤄진지 1년만인 1938년부터 再開되었다고 보아 무방하다.

中日戰爭중에 폭로된 蔣介石정권의 부패와 무능은 이와 역비례하

여 中共의 인기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했다. 37년부터 45년의 8년간이나 지속되는 対日戰爭에서 国府勢力은 弱화되었고 中共의 세력은 強化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45년 8월 「알타」에서 「스타린」과 체결된 「中蘇友好聯合條約」에 따라 蘇聯은 中国領土에 合法的으로 발을 딛게 되었고 滿洲를 점령하여 中共軍의 後見者的 세력기반을 닦아놓았다. 이 유리한 관계를 이용하여 中共은 勢力擴張에 박차를 가하였고 이 움직임을 간파한 国府가 이를 正面으로 견제하려 들자 国府와 中共간에는 正面衝突의 기운이 감돌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해서 험악해지자 美国은 「조지 마셜」장군을 中国에 분쟁해소의 特使로 파견했다.

「마셜」장군은 45년 12월 中国에 到着하여 47년 1월초 國務長官으로 발탁돼 「워싱턴」으로 귀임하기 전까지 13개월 동안 蔣介石과 周恩来사이에 平和的인 再結合方案을 중재 또는 협상했다.

「마셜」장군이 中国에 到着하였을때 蔣의 軍勢는 毛沢東의 共產軍과 비교할때 6배나 되었다.<sup>1)</sup> 蔣介石 총통은 武力에 의한 승리만이 毛沢東을 協商의 테이블로 유도하는 最善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共產軍은 国府軍의 통신망을 끊고 기민한 기동력으로 저항하면서 休戰을 제의하였다. 워낙 數에서 달리던 中共은 일단 休戰을 제의하여 国府軍의 压力을 피해보자는 戰術을 썼다.

위세 당당하던 国府는 休戰의 선행조건으로 国府軍 지도하의 中

共軍통합과 民主的 聯立憲政 樹立을 내세웠다.2) 그러나 中共의 存立여부가 中共軍에 달렸다고 믿고 있었던 中共은 國府의 그러한 선행요건에 응할리 없었다. 그래서 中共은 대신 民主聯政樹立을 먼저 단행하고 軍事통합은 후에 하자고 제의하였다. 中共이 聯政부터 실시하자고 내세운 것은 大衆의 기반을 굳히고 있었으므로 일단 聯政을 세운후 大衆의 지지로 實權을 잡아 보자는데 있었다. 이를 또한 간파한 國府는 先軍事통합 後聯政수립을 고집하게 되어 일치점을 찾지 못했다.

聯政樹立에도 國府와 中共 兩側은 각기 다른 의견과 목적을 갖고 있었다. 國府는 聯政體制에서 大統領權限을 強化하는 대신 議會權限을 縮小시키고 中共行政權을 強化하는 한편 地方自治權을 거의 없애려 했다. 國民黨의 집권을 위해 必要한 要件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하여 共產黨이 바라던 憲政은 전혀 달랐다. 모든 政黨과 社會團體가 參與하는 憲政樹立委員會를 열고 그 準備를 이 委員會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國民黨의 既存機構등을 無用之物로 만들자는 속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聯政이 樹立된다 해도 行政要職를 장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中共은 大衆을 기반으로 한 議會의 權限을 強化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동시에 中共은 각 村落의 지지세력을 감안, 地方自治制와 地方行政權의 擴大를 要求했다.

이와같이 서로 엇갈리는 國府와 中共의 聯政形態는 兩側이 진실

로 共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单独支配를 꾀하고 있음을 노정한 것이다. 여기에 「마샬」장군은 本質적으로 不可能한 国·共대결을 協商을 통해 해소한다고 뛰어난 것이다.

### Ⅲ. 聯政樹立 戰術

「마샬」장군은 中國에 45년 12월 到着한 후 첫 3개월동안 仲裁에 힘썼다. 國府側이나 中共側이나 이들은 서로 「마샬」을 자기편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려 했으므로 國·共 兩側은 처음 그를 환영했던 것이다.

이러한 무드속에 「마샬」은 46년 1월 10일 國·共간의 休戰 協商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곧이어 1월 31일까지 이른바 「政治協議會」라는 것도 國·共간에 형성할 수 있었다. 2월 25일에는 軍事再組織協定 체결을 맺게 하였다.

中共과 休戰協商을 벌이고 있던중인 1월 4일 「마샬」장군은 당시 中共側協商代表로 南京에 와있던 周恩來를 만나 美國政府는 國府軍이 滿洲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周는 즉석에서 이것에 항의하고 休戰協定 조항에서 國府軍의 滿洲이동 조항을 削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월 9일 國民黨이 休戰協定の 先行條件으로 滿洲지역내의 2개都市 점령을 요구하자 中共은 이를 또 거부하였고 「마샬」은 이때 中共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1월 10일 國府와 中共이 동시에 발표한 休戰協定の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당시 蘇聯軍에 의해 점령되고 있던 滿洲에



主權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中国軍隊 ( 国府軍이나 中共軍을, 특별히 지칭하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 )를 파견할 수 있다고 했다.

② 美国政府, 国府, 中共의 대표로 혼합 편성되는 指揮司令部를 설치하고 그 議長은 美国人이 맡으며 議決은 만장일치로 한다.

③ 休戰유지와 재충돌 예방을 위해 감시반을 편성하는데 그 구성원은 역시 美国 国府 中共의 대표로 한다. 美国대표로서는 「마샬」장군을 추대했다. ③

이와같은 休戰協定 내용에 승낙할 수 있었던 兩側의 무드는 「政治協議會」를 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国民党대표 8명, 中共黨 대표 7명 民主同盟 9명, 青年黨 5명, 그리고 無所屬 9명, 도합 38명이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회합을 갖고 끝내는 国民党에 불리한 政治改革案을 채택했던 것이다. 国民党이 바꿨던 大統領 權限의 강화에 제동을 걸고 議會의 權限과 對等케 만들었으며 地方分權 原則을 영입하여 各省의 自治權을 強化시켰다. 中共이 피했던 地方自治權의 증대를 보장했던 것이다.

각 省의 長은 住民들의 투표로 直選케 하였다. 村民과 大衆의 지지를 받고 있는 中共으로서의 地方政權 장악의 터전이 마련된 셈이다. 만약 地方政權 장악에 승리한다면 그것은 中央政權을 서서히 침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써 中共執權의 첫 단계를 보장한 셈이 되었다.

이 政治協議會가 열리고 있던중 蔣介石은 「마샬」에게 国民党에 유리한 改革案을 共產黨이 받아들여도록 설득해 주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마샬」은 政治協議會가 채택한 地方自治權 中心의 案만 이 中國의 立憲政府를 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方法이라고 믿고 蔣의 요청을 일축해 버렸다.

어쨌든 國府와 中共간에 休戰協定과 政治協議會 소집에 성공한 「마샬」은 2월 25일 國·共 兩軍의 統合協定 체결에 성공했다.

이 協定에 의하면 統合된 兩軍의 총수는 60개사단으로 하고 이 중 國府軍이 50개사단을 中共軍이 10개사단을 각각 보유하기로 했다. 나머지 兵力은 모두 해산키로 했다. ④ 이결과 國府軍과 中共의 兵力비율은 5대1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兵力統合의 실현은 政治協議會 決議案에 따라 聯政이 수립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이에 대해 國民黨은 이미 지적한 대로 軍事統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中共은 政治改革을 先行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兩側은 반씩 양보하여 政治改革과 軍事統合을 동시에 실시키로 타결하였다.

그러나 타결에 있어서도 「마샬」은 周恩來의 편에 섰던 것이다. 왜냐하면 軍事統合과 內政改革은 실질적으로 이미 45年 12月 8日 부터 요구했던 것으로서 「마샬」이 周의 요구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마샬」장군은 그가 仲裁해서 이룩해 놓은 休戰協定, 內政改革, 軍事統合을 外交的인 勝利로 믿었고 그것이 中國에 平和의 토대가 될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샬」이 거둔 수확은 단지 國府와 中共이 서로 凶策을 감추고 보다 유리한 政治的 軍事的

우위를 얻어내려는 戰術的 퇴각에 지나지 않았다.

후에 「마샬」 자신이 회고한바와 같이 蔣介石은 協商이라는 이름아래 內面으로 武力政策을 추구하였으며 그의 仲裁를 軍事행동을 위한 煙幕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中共은 休戰과 平和를 길으로는 외치며 聯立政府 수립을 바라는듯 교묘하게 속여가면서 힘 닿는대로 새로운 거점을 늘리려고 軍事力을 증강해 가는등 中国赤化에 토대를 구축해 갔다.

당시 中共軍의 한 간부였던 朱德은 1951年 발표한 論文에서 45年과 46年の 國共聯政수립 協商時 中共이 노렸던 것을 솔직히 털어 놓았다. 그의 論文에 의하면 이때 中共은 國府와 正面충돌하게 되면 패배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平和」 「民主主義」 「統一」이라는 大義名分을 내세워 國府와 戰爭을 피하고 自家勢力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方法을 모색했었다는 것이다. 大衆에 호감을 살 수 있는 온건 政治改革을 들고나와 國府를 고립시키는 한편 결정적인 시기를 위해 武力증강에 힘썼다고 한다.

사실 46年1月 國·共간에는 엄연히 休戰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黨간부들에게 軍事훈련 강화, 生産증대, 土地改革 단행등에 重点을 두라는 指令을 계속 하달했다. 46年 5月4日 中共黨 中央委는 이때까지 실시되었던 小作料 감소라는 온건로선을 폐기하고 耕作地를 地主로부터 無償으로 몰수하고 小作人에게 無償分配하라는 새로운 指示를 내렸다. ⑤

이와같은 과격한 土地몰수 政策은 中共이 1937年 國府와 對日 抗爭 聯合戰線을 관철하기 위해 잠시 修正했던 土地政策을 다시

빼기하고 그 이전의 상태로 과격하게 회귀하고 있음을 실증했다. 土地몰수 強行은 私有土地制를 基本으로 하는 國府와의 영원한 결별을 신호하는 것이었으며 無償土地配分으로 환심을 사게 된 農民들을 國府와의 鬭爭에 동원하려는 術策이었다.

이처럼 國·共 兩側의 協商目的이 완전 상치되는 상태에서 決裂이란 불가피한 것이다. 例컨데 일정한 協定에 兩側이 도달하게 된 다해도 그들은 그 協定을 통해 상호 共存보다는 기회만 있으면 자기편에 유리하게 勢力관계를 조작하기에 血眼이 되었을 뿐이었다.

이 결과 조성되는 긴장과 갈등은 새로운 시비와 갈등을 야기하여 國·共관계를 날이 갈수록 惡化시켰던 것이다.

46年 2월에 체결된 兩軍統合協定이 자기측에 不利하다고 판단한 中共은 이 協定을 이행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休戰協定이 엄연히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兩側간에는 계속 戰爭이 끝이지 않았다. 國府와 中共은 聯政이 성립되거나 아니면 協商이 決裂된다 해도 事態대비를 위해서는 主要都市 점령이 절대 필요하다고 간파, 都市점령에 열을 올렸다.

國府軍은 당시만 해도 共產軍에 비하여 6배나 수적으로 우세하였으므로 中共軍의 軍事力이 보강되기전에 완전승리를 거두려 기도했고 中共은 이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國府軍과의 正面대결을 회피하며 시간을 벌자는 태도로 임했다.

「마샬」장군은 이런 상황하에서 休戰協定이니 兩軍統合이니 內政改革이니 하며 理想論에 빠져 中共이 획책하던 시간벌이 작전을 유리하게 만들었고 速戰速決로 中共軍을 밀어내겠다는 蔣介石의 戰略을 견제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 III. 周恩来的 協商術

文書上으로나마 46年 1月 체결된 国·共休戰協定에 따르면 蘇聯 占領하에 있던 滿州에 国·共 兩軍은 進駐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거기에 갇혀있었던 敗戰日本軍과 休戰協定을 체결함은 勿論 其他 그지역의 질서유지를 위해 兩軍의 進駐는 필요했던 때문이다.

따라서 「마샬」장군은 国·共이 혼성팀을 만들어 滿州에 進駐할 것을 国·共 兩則에 提議하였다. 中共은 同意하였고 国府는 거부하였다. 国府는 滿州에서 단독 행동을 원했고 武力으로 中共을 제압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4月 6日 蘇聯軍이 滿州에서 철수하게 되자 그자리는 軍事的 空白으로 남게 되었다. 이 空白지대를 놓고 国·共의 對立은 날카로워졌다. 国府軍은 各 兵力을 투입 都市와 交通망을 占領함과 동시에 中共軍의 장악하에 있던 촌락까지 수중에 넣기 시작했다.

中共은 이보다 한술 더 떠 기민한 기동력으로 거점지역을 조직적으로 擴大해 갔다. 더욱이 蘇聯軍은 中共軍이 効率的으로 占領지역을 擴大할 수 있도록 그들에 편리하게 撤収했기 때문에 国府軍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4月 18日 中共軍은 国府軍에 의해 수비되고 있었던 「창천」을 탈취하였다. 「창천」占領은 勿論 国·共休戰協定 위반행위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蔣介石은 滿州에 대한 全面攻擧를 개시했다.

1 個月에 걸친 苦戰 끝에 國府軍은 「창천」을 탈환하였고 이어 吉林과 「하르빈」으로 물고 들어갔다.

中國問題는 오로지 協商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온 「마샬」장군은 이와같이 滿州에서 다시 격화되고 있던 國·共戰에 休戰을 成立키 위해 뛰어 다녔다. 6月6日부터 30日까지 24日 동안 戰爭행위를 중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 24日 동안 「마샬」은 國·共兩側을 和解로 이끌 수는 없었다. 兩側은 일단 休戰을 해놓고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새로 協商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 획책했다. 國府측은 戰況이 中共에 不利할 때 休戰에 應하면 中共이 國府의 주장에 순순히 양보하고 들어올 줄 착각했다. 그러나 中共은 「마샬」의 仲裁를 이용하여 不利한 戰勢에서 일단 벗어나고 보자는 심산이었고 休戰 후에는 엉뚱하게 協商을 통해 유리한 입장을 굳혀가자는 것이었다. 周恩來의 교묘한 戰術이었다.

周는 항상 協商에 임할 때 회유적이고 온건하며 理知的으로 대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샀다. 그는 46年 10月까지도 「마샬」장군의 진지한 仲裁努力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고 지켜 세웠다. 한편 다른 中共간부들은 美國이 國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美國은 46年 6月 28日 5천 1백 70만 달러를 國府도 中共도 표시않은 애매한 「中國」에 대여키로 했다. 美議會는 國·共兩軍의 統合을 순진하게 예상하고 통합된 후 中國軍을 訓練시킬 목적으로

美軍事고문단과 軍裝備를 보낼 議案을 제출하였는데 6月 22日 毛沢東은 이를 맹렬히 공박하였다. 당시 國務長官이었던 「딘 애치슨」에 의하면 이 원조의 일부는 中共에도 공여될 것이었다 한다. 毛는 美國이 對國府 군사원조를 중단할 것과 모든 美軍을 中國大陸으로부터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7月 7日 中共의 中央委는 「美國은 中國의 國內問題에 武力간섭을 말라」는 聲明을 발표하고는 7月末에 들어와서는 美海兵隊에 대한 납치와 기습을 감행하였다.

7월에 들어와 國·共간의 戰爭은 또 다시 擴大되었다. 20日 毛沢東은 党内指令으로 全共產黨員들에게 國府軍을 전면 分碎하라고 지시했다. 毛는 이 指令에서 蔣介石은 비록 美國의 援助를 받고는 있지만 中國國民이 그의 政權에 실증을 느끼고 있으며 國府軍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經濟는 크나큰 시련에 봉착하였으므로 中共軍의 승리란 自명한 것이라고 確信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長期計劃을 세워야 한다고 力說하였다. 이러한 戰略의 일환으로 우선 방위하기 힘든 都市는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기동성있는 作戰으로 國府軍을 요격하면서 한편으로는 土地문제를 해결하고 解放된 地域의 人民生活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6)</sup>

中共이 이제와서는 공공연하게 協商보다는 武力에 의한 國民黨타도를 외치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마샬」은 허황된 協商에 希望을 잃지 않고 있었다. 美國은 7月末 中國에 보내기로 했던 武器수송을 10個月동안 금지시켰다. 美國의 對國府軍 군사원조를 반대

하는 中共을 회유하여 協商을 유도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 武器 禁輸 조치로 인하여 國府軍은 武器조달이 어렵게 되었고 中共軍에 決定打를 날리려던 蔣介石의 計劃에 제동을 걸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蔣에 밀리던 中共에는 時間을 버는 숨통을 마련해 준 셈이다.

美國의 그와같은 회유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46年 8月 13日 中共機關紙는 美國의 對中國政策이 2重性을 띠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하나는 國府의 對中共全滅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표면적으로 전시적 效果를 노리기 위해 蔣介石으로 하여금 國·共戰을 중지하도록 설득하는 체하는 제스처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毛沢東도 한 美國記者와의 會見을 통해 「美帝國主義者」들은 蔣介石을 원조하고 있고 中國人民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美國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美國이 보유하고 있는 原子彈이 可恐할 威力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中國人民을 공포속으로 몰아 넣고 있으나 戰爭의 결과는 人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46年 8月 30日 美國이 國府와 剩餘物資販賣協定을 체결하자 中共은 이것을 맹렬하게 공박했다. 8月初 中共은 이미 「룽하이」철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다둥」을 포위하였으며 8月 19日 國府軍의 空軍機가 延安을 폭격하자 中共은 全軍에 動員令을 내렸다.

8月 7日부터 9日까지 國府軍은 우세를 보여 蔣介石이 協商에서 中共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滿州의 鐵道와 村落을 占領하였다.



이와같이 国府軍이 共產軍에 打撃을 가하자 「마샬」장군은 또 다시 協商에 대한 執念을 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国·共 協商이 재개토록 추진했다. 그러나 蔣介石은 그가 요구하는 모든 条件들이 中共에 의해 수락되지 않는한 「마샬」의 休戰제의에 応할 수 없다고 버텼다.

国府軍이 진격을 계속하자 南京에 協商次 와있던 周恩来은 休戰 成立이 急先務라고 연막전술을 썼고 延安에 있는 毛沢東은 9月 16日 党幹部들에게 党内指命을 하달하고 精銳軍을 집중시켜 国府 軍을 차례로 격퇴하라고 지시했다. 毛沢東은 이 지령에서 日本軍과 싸울 때는 兵力을 분산시켜 게릴라戰法이 主役이었고 機動성을 살린 집중作戰은 補助的이었으나 国府軍과의 戰鬪에서는 반대로 집중戰術이 主役이 되고 게릴라戰法은 補助的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집중戰術은 背後에 第2陣을 確保하지 못한 敵에게 는 가장 效果的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国府軍은 46年9月30日 共產党勢力의 심장부인 内蒙古의 「갈간」에 대한 全面攻擧를 개시했다. 당일 周恩来은 「마샬」을 만나 国府軍이 「갈간」진격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中共은 美国을 民族分割주의 자요 平和的 해결방법을 회피하는 政策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周的 공갈협박은 적중했다. 10月1日 「마샬」은 곧장 蔣介石에게 달려가 「갈간」진격을 포기하라고 요청했다. 만약 그의

포기요청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마샬」은 「트루만」美国大統領에게 사포를 내고 美国의 仲裁를 단념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蔣은 美国의 仲裁포기를 우려치 않을 수 없었다. 仲裁 그자체에 대한 기대가 커서가 아니라 美国의 원조가 동시에 끊어질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마샬」의 压力에 못이긴 蔣介石은 며칠동안이라는 時限付 休戰을 宣稱했다. 이에 대해 周恩來는 며칠에 그칠 時限付 休戰에는 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그리고 周는 「마샬」에게 代案을 제시했다.

첫째 中国에서는 1月13日 이후에 占領한 地域과 滿洲에서는 6월 7일 이후에 占領한 地域에서 国府는 물러날 것.

둘째 国府는 政治協議會에서 決議된 사항을 준수할 것 등이었다. 周가 政治協議會내용을 들고나온 目的은 協議會에 參加했던 群小政黨에 환심을 사자는데 있었다.

그후 蔣介石은 11月15日에 國民會議를 소집키로 했다. 이에 대해 또 中共은 國民會議소집이 일방적인 행위이며 政治協議會 決議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비난하는 한편 群小政黨에 이 會議소집을 보이코트하라고 선동했다. 國民會議는 이런 소란속에 예정대로 15日 中共과 青年黨이 不參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周는 4日후에 延安으로 떠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國·共協商은 「마샬」이 1945年12月 南京에 到着한후 1年여에 걸친 진통을 거듭했으나

아무런 成果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周恩来가 国民會議 소집을 전후해서 종래 상냥하던 태도를 버리고 갑자기 강경한 태도로 돌변하여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나버린 데는 理由가 있다. 10月1日 하달된 毛沢東의 党内지령에서 그 理由는 설명된다.

이제는 国府軍과 全面戰爭에 돌입해도 中共측에 勝算이 있다고 確信한데 연유했다.

긴 설명을 담은 毛의 党지령에 따르면 7月~9月 사이에 毛는 戰線이 擴大되면 될수록 戰勢가 中共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戰線이 擴大될수록 国府軍은 점령지역에 대한 守備부담으로 兵力의 분산을 견지않으면 안되었고 이와는 반대로 中共은 兵力의 집중을 가져와 공격력이 강화돼 必勝을 다짐한다고 力說했다.

国府軍 1백90여개 여단兵力中 거의 반수가 수비대 임무를 맡아야 했다는 것이다. 中共장악지역으로 진격하는 国府軍中 과반수 이상은 수비임무로 빼돌려야 했던 때문이다. 中共은 이러한 戰況에서 불과 7月~9月 3個月동안 1백90여개 여단중 25개여단을 분쇄하였고 앞으로도 3개월동안에 25개여단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다. 毛의 豫言대로 国府軍은 全戰線에 걸쳐 계속 敗走하기 시작했고 1949年10月30日 中国本土에서 밀려나 台灣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IV. 特 徵

(I) 理想主義 - 人種的으로 다양하고 法意識이 강하며 商去來 倫理가 발달한 美國같은 社會에서는 對人關係가 法理論的 기초위에 合理的 關係에 서게 된다. 이러한 法理論的 合理的 關係에 있는 社會에서는 對人關係에서 問題가 發生할 경우 그 問題를 合理的 기초위에 妥協이나 協商을 통해 해결하려 든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法的 테 두리 안에서 協商을 통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며 利害의 일치점을 찾아 해결한다.

協商과 妥協을 통한 분쟁의 解決방식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合理的인 선에서 서로 利害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美國式 분쟁해결 방법은 美國의 外交政策에도 나타난다.

「마샬」장군이 國. 共간의 분쟁을 協商을 통해 解決할 수 있다고 환상에 빠졌던 것은 그의 개인적인 특성에 연유한게 아니라 美國的 思考方式에 기인했다.

合理的인 선에서 利害의 공통점을 찾아내 분쟁을 解決하려는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全部 아니면 全無라는 東洋的 思考方式에 젖어 있는 東洋人의 意識構造에는 그러한 美國的인 분쟁해결방법은 결코 實効를 기대할 수 없다.

(II) 中共의 本質把握 失敗 - 美國은 中共이 共產主義 政權이라기 보다 단순한 左傾 社會改革主義 집단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美国은 協商과 妥協을 통해 社会改革의 기반이 조성만 된다면 中共이 国·共聯合에 동조 할 줄로 잘못 믿고 있었다.

그러나 中共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 따라 全中国大陸에 대한 赤化革命을 양보할 수 없는 革命課業으로 삼고 革命戰術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여 갔던 것이다. 상대편에 대한 認識부족의 탓이다.

(Ⅲ) 選舉意識 - 「마샬」장군은 国·共간에 休戰協定이 수없이 깨지고 政治協商이 계속 失敗하며 国·共 양측이 기회만 있으면 상대편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모를리없었다. 이들간의 妥協이나 聯政수립같은 것은 이뤄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마샬」은 2년동안이나 協商을 매개하면서 把握 못할 썩매은 아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샬」장군은 不可能한 일을 위해 뛰어나야 했다. 그 理由는 간단하다. 당시 執權하던 美国의 民主党政權은 美国의 反戰思想을 감안 国·共紛争에 軍事的으로 말려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美国民은 1945年 8月 15日 끝장난 2次 大戰이 종료된지 얼마 안되므로 깊은 反戰무드와 平和욕구에 충만돼 있었다. 이 時代的 潮流를 간파한 民主党政權은 46年의 中間選舉와 48年의 大統領 선거. 포석을 위해 反戰무드를 거스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므로 国·共분쟁이 軍事的으로 확대돼 갔었으나 「트루만」行政府는 이 분쟁에는 軍事的으로 개입해서는 안된

다는 原則을 세워놓고 대신 平和協商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平和的 해결방법이 不可能한데도 美國은 美國民의  
무드에 편승하기 위해 軍事支援 대신 탁상공론이나 일삼다가 中國  
大陸을 赤軍의 손에 넘어가게 했던 것이다.

## 第二部 對蘇統韓協商

### I. 모스크바協商과 美·蘇共同委

2차大戰후 南韓占領軍 美軍司令官은 「존. 하지」장군이었고 北韓占領 蘇聯司令官은 「치아스티아코프」였다. 「하지」장군은 南韓에 도착하면서부터 南北韓간의 왕래를 완화하고 파경에 이른 韓國경계의 부흥을 기하는데 신경을 썼다. 「하지」장군은 이 목적의 일환으로 蘇聯측 「치아스티아코프」에게 南北統合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 그는 이제의를 거부했다. 거부이유는 간단했다. 蘇聯政府로부터 統韓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바 없으므로 어떠한 統韓협상에도 응할수 없다는 것이었다.

蘇聯과의 当事国 접촉에 실패한 美國은 統一문제를 美·英·蘇 3國外相으로 구성된 이른바 「모스크바三相會議」로 넘겼다. 「모스크바」에서 1945년 12월 개최된 三相會議는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들에 合意를 보았다. (1) 韓國을 獨立國家로 再建할 것을 유의하며 韓國에 「臨時民主政府」를 수립한다. (2) 駐韓美·蘇兩軍指導者들로 구성되는 美蘇共同委員會를 설치하여 統韓문제를 협의케 한다. (3) 美·英·蘇·中 4개국간의 協의를 거쳐 韓國에 5年이내에 信託統治制를 설치키로 한다는 것 등이었다. 蘇聯측 資料에 依하면 4強에 依한 韓國信託초안은 최종안과 달랐다는 것이다. 信託초안은 美國이 작성했으며 그美國초안은 信託期限을 5年이 아니라 10年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蘇聯의 반대로 5年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美國案은 信託통치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軍政下에서도 韓國人의 臨時政府 設置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信託統治도 美國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뉴스는 蘇聯측의 고의적인 제략에 따라 전해져 韓國人의 對美敵愾心을 유발한바도 있다.

당시 美國務省은 美國이 三相會議에서 信託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蘇聯의 韓國지배를 저지키 위 한데 있었다고 기록했다. 美國은 韓國에 상당 기간 동안의 信託없이 韓國을 놔둔다는 것은 蘇聯이 韓國의 임시정부를 집어삼키도록 韓國을 放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①

「모스크바」決議에 따라 美·蘇共同委員會에 비회담이 서울 德壽宮에서 46년 1월 열렸다. 美國측 代表 「아놀드」소장과 蘇聯측 代表 「슈티코프」장군간의 회담은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했다.

「아놀드」장군은 分斷된 南北韓이 行政과 기타 經濟面에서 協力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토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슈티코프」는 政治的인 問題부터 協商해야 한다고 맞서고 나섰다. 그로부터 30여 년후인 오늘날 까지 南北韓간의 對話에 있어 韓國측이 人道的 非政治的 問題부터 풀어가자고 北韓 調節委나 北韓赤十字측에 제안하는데 반해 北韓측에서는 계속 政治的 問題부터 해결하자고 우겨대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겠다. 그때의 蘇聯이나 지금의 北韓이 모두 非政治的 교류를 두려워했던 것은 38선과 休戰線 이북을 南韓에



개방치 않고 폐쇄하려는데 있었다. 뿐만아니라 蘇聯측은 3월에 열린 公式 美蘇共同委員會에서 反託人士들을, 장차 세워질 臨時政府 구성 協議對象으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反託人士들이 右派에 속해있었으므로 그들을 따돌린다는 것은 美蘇協議會에 참석할 사람을 親共一色으로 하자는 의도 이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 美國이 이같은 蘇聯의 저의를 모를리 없었으므로 美國은 이를 거부하고 말았다. 이런 상처되는 의견대립 속에 美蘇共同委員會는 아무런 성과없이 5월에 결렬되고 말았다. 이 共同委는 1년후인 47년 5월에도 才 2차회의를 개최하긴 했으나 蘇聯의 反託人士배제 주장에 부닥쳐 統一韓國이나 南北韓의 協力에 관해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했다.

美蘇共同委에서 「슈티코프」소련대표는 솔직하게도 蘇聯이 北韓을 놓지않으려는 저의를 실토했다. 蘇聯은 韓半島가 장차 蘇聯을 공격하는 基地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韓半島가 敵對國이 아닌 「蘇聯의 영향」하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美國은 오래전부터 韓半島가 蘇聯이나 中國의 지배로 들어가는 안된다고 믿었었다. 따라서 美國은 美.蘇共同委에서도 韓半島와 이마를 맞대고 있는 蘇聯이 韓國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美國은 이를 위해 38선 획정에 이어 信託統治를 고안해 냈던 것이다.

美蘇兩國이 이와같이 韓半島를 사이에 두고 利害관계가 상충했다는 것은 「Fred Warner Neal」교수의 基本利益理論에 입각하여 생각할때 兩國이 서로 양보할수 없는 이해 관계에 봉착돼 있음을 반영한다. 「니일」理論에 의거하면 한 國家의 基本利益이란 그 國家의 生存을 위해 침해되어서는 안 될 不可侵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國家의 基本利益이 침해된다는 것은 바로 그 國家의 生存을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弱小國에 있어 基本利益이란 「단순히 領土保存」으로 국한하지만 強大國에 있어서의 基本利益은 國境을 넘어 연장되는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 했다. ③

사실 1945년 太平洋에 있어 美國의 基本國家利益은 國境을 넘어 南韓의 38線에 까지 연장되었다. 두말할것 없이 日本을 패망시키고 새로 지배하게 된 太平洋의 安保를 위한 것이었다. 蘇聯도 마찬가지였다. 韓半島 開港이후 「러시아」는 기회있을 때마다 韓半島 진출을 꾀해왔다. 「러시아」는 李朝末에 馬山에 대한 租借를 시도했고 압록강유역에 벌목권을 획득하고는 군대까지 파견한바 있으며 高宗을 서울 駐在 露國公館으로 옮겨 1년동안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한 바 있다. 이러던 러에 蘇聯은 2次大戰을 맞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北韓을 쉽사리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北韓을 蘇聯이 또한 쉽게 내놓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蘇聯은 2次大戰中 西部國境地帶에 東「유럽」이라는 衛星國家群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東部國境에 衛

星國家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대상으로 北韓이 떠오른 것이었다. 이렇게해서 1945년 蘇聯의 基本國家利益도 北韓으로 연장되어 美國의 그것과 38 선에서 중부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I. 對蘇유엔協商

蘇聯에 처한 단호한 태도와 現狀유지政策에 유여 蘇聯과 韓半島 問題를 직접 담판하는데 흥미를 잃게 된 美國은 南北韓問題를 「유엔」으로 끌고 들어갔다. 1947년 9월 17일 美國은 韓半島 問題를 제2차 「유엔」총회에 제안했다. 「유엔」에 韓國問題를 제기하게 된 理由로는 몇가지를 더 들수있다.

첫째, 「이란」의 예를 따라 시도해 보자는 희망적인 기대를 들 수 있다. 美國은 전후 분열되었던 「이란」의 「유엔」의 協力과 절차에 따라 再統一된것을 본보기로 삼아 南北韓의 경우도 「유엔」에 일단 맡겨 보려던 속셈이었다. 둘째, 당시 「유엔」은 美國의 절대적인 영향력하에 있었으므로 美國은 이 영향력을 이용하여 韓國問題를 美國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려 생각했다. 「리처드 알튼」이 적절히 지적했던 것처럼 「유엔」은 「美國의 클럽」과 같았다.

셋째, 배농을 수 없는 理由로는 對外關係를 法과 道義精神의 구현으로 정당화 시키려는 美國對外觀의 情性이다. ④ 美國은 19세기

말엽에 이르러 對外關係를 安保와 經濟의 차원에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法的 道義的 시각에서도 설명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스페인」의 식민지 「쿠바」에서 獨立반란이 일어나자 美國은 「쿠바」에 對한 「스페인」軍의 반란진압 행위가 非人道主義的이란 이유를 내걸고 「쿠바」 獨立운동에 개입했다. 결국 道義的 名分下에 간섭하게 된 美國은 1898년 有名한 美-「스페인」戰爭을 일으켰다.

20세기로 넘어와서도 이러한 추세는 弱化되지 못하였다. 獨逸帝國이 1次大戰을 일으키자 「윌슨」美國대통령은 「게르만」에 民主主義를 가르치고 世界의 民主수호를 위해 獨逸을 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1次大戰에 뛰어들었다. 1次大戰이 끝나자 美國은 人類의 平和와 正義란 國際同盟과 같은 世界기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른 것이다. 「헨리 캐벗 루지」등 獨立主義者들의 반대에 부닥쳐 美國의 개입은 실행되지 않았으나 19세기 말 부터 이와같은 美國의 마음에 들기차게 뻗어왔던 法的 道義的 접근방법은 2次대전후 「유엔」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法的 道義的 對外政策觀은 차원을 달리 하기는 하나 1970년대에 이르러 「지미 카아터」美國大統領에 의해 승계되었다.

美國이 法과 道義의 正当性을 내세워 對外政策을 추구하게 된 데는 그밖에도 다른 要因들이 있다. 본래 獨立精神과 함께 살아온 自由와 正義에 대한 사명감, 새文化창달자로서의 자부심, 「앵글로-

아메리칸」이 갖는 특유한 法秩序意識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美國이 多民族國家라는 데서 오는 특수성이다. 多民族國家인 美國은 對外政策 수행상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렵다. 누구나 자기 母國에 유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美國은 對外政策을 수행할 때엔 어떤 人種에게도 남득이 쉽게 갈수있는 推想的인 法과 道義개념을 내세워 種族을 초월한 지지를 얻어두는 것이 필요했다. 이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美國의 對外政策은 法이다, 道義다하는 식의 理想主義를 對外政策에 내걸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어쨌던 美國은 韓半島에서 「유엔」 감시를 통해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결과에 따라 政府가 수립되면 주문중인 美·蘇兩軍은 철수하며 여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감사하고 협의할 「유엔」 韓國委員會를 설치하자고 「유엔」에 제안하였다. 蘇聯은 그러한 제안이 韓國으로부터 美國이 손을 떼려는 것으로 착각했는지 9일 만에 곧 蘇聯측 제안을 「유엔」에 따로 접수시켰다. 蘇聯측 제안은 1948년 부터 美·蘇兩軍이 兵力을 韓國으로 부터 철수시키고 南北韓은 外部의 간섭없이 韓國人 스스로가 자기 政府를 수립토록 하는 것 등이었다.

韓半島로부터 外軍이 모두 철수하고 韓國을 韓國人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蘇聯측 제의는 美國이 「카이로」 회담때 부터 품임없이 우려했던 바로 그것이였다. 日本 패망으로 야기된 韓半島의 힘의

空白을 이용하여 韓半島 지배를 획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해 왔다. 이 空白을 방지하기 위해 美國은 38線 획정과 信託統治를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착착 구비된 상황에서 美國이 蘇聯의 그와같은 제안을 받아들일리는 만무했다. 美國은 그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對共強硬派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李承晚 박사는 駐韓外國軍의 철수에 앞서 北韓共產軍의 武裝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特別히 駐韓美軍은 南韓의 군대를 충분히 훈련시키고 장비를 갖추어 출때까지 철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⑤ 南韓의 여러 신문들도 그러한 보장없이 駐韓美軍의 철수를 환영할수 없다고 반대했으며 결국 美軍 철수는 잘 훈련되어 있고 잘 무장된 北韓共產軍의 南下를 초창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30여년후인 오늘날 駐韓美地上軍 철수를 둘러싼 韓國의 반대여론을 상기시키기에 족한 사건이었다.

10월 17일 美國은 蘇聯측 제안을 반대하는 修正案을 제안했다. 이 修正案은 48년 3월 31일까지 「유엔」 감시하에 南北韓이 각각 分斷地域内에서 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美蘇兩軍의 철수문제는 새로 들어설 南北韓 兩政權에 依해 논의하기로 하자는 것이었으며 国会구성 비율은 人口비례로 하기로 했다. 이 人口비례는 당시의 南北韓 人口수로 보아도 南韓이 3분2로 유리했다.

이번에는 蘇聯이 美國의 修正案을 거부할 차례였다. 되도록 駐韓美軍을 철수시키고 韓國民들의 손에 맡겨놓은 다음 韓半島에 걸도는 힘의 공백을 이용, 南韓까지 赤化하려는 蘇聯의 계획에 거슬리기 때문이다. 蘇聯은 또다시 그들 나름대로의 수정안을 내었다. 이 修正案 또한 駐韓外國軍의 철수를 계속 요구한 것이었으며 韓國民에 의한 韓國의 自治를 재강조했다. 요즘 北韓 金日成 集團이 떠들어대는 自主平和統一과 美軍철수 주장과 흡사한 것이었다.

蘇聯이 이처럼 初志一貫해서 駐韓美軍의 철수를 요구하자 美國은 중무장된 北韓共產軍과 사회적 혼란을 이용한 共產主義者들의 내분 조성을 더욱 더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해서 美國은 당시「유엔」을 좌우하고 있던 영향력을 활용하여 蘇聯측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美國案을 47년 11월 14일 가결시켰다. 이 「유엔」決議案에 따라 「유엔臨時委員團」이 결성되었으나 北韓은 이들의 入北을 거부하였고 南韓에서만 48년 5월 10일 檀君이래 최초의 國民投票가 실시되었다.

### Ⅲ. 特 徵

(1) 國家基本利益保護 - 어떠한 協商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國家基本利益이라고 했다. 美國은 2次大戰후 蘇聯과의 統韓協商에 임함에 있어 韓國의 安保가 위협받을 만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

지 않았다. 韓國의 安保는 美國의 太平洋安保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國家基本利益에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美國은 國共合作協商의 경우와는 달리 韓國의 安保를 저해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거부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II) 상대편의 意圖 파악 - 國共協商때와는 달리 對蘇協商에서 美國은 韓半島에 對한 蘇聯의 야욕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美國은 역사적으로 「러시아」民族이 南下하려 기도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2次大戰中 蘇聯과 對獨聯合戰線을 위해 戰列을 나란히 하면서도 蘇聯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特히 「스타린」과의 戰時會議을 통해 그리고 「스타린」의 東歐圈 衛星化에 對한 不信으로 美國은 당시 對蘇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III) 選舉와 無關 - 서울 德壽宮에서 美·蘇共同委가 열리던 46년은 美國의 中間選舉가 열리는 해였다. 中間選舉라는 것은 대통령을 뽑지 않는 上下兩院의 半數를 선출하는 선거에 불과하나 「트루만」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선거였다. 45년 4월 「루즈벨트」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만」으로서 처음 맞는 中間선거였으므로 그의 인기를 시험하는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의 對蘇協商은 서들지 않고 韓國의 安保를 해치지 않고 蘇聯에 양보하는 그런 날림 協商은 하지 않았다. 美國의 基本國家利益이 韓國에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벌리 서울에서 열



리는 美蘇共同委 같은 것에 대해서는 美國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 第三部 休戰協商과 쿠바

#### I. 韓國休戰協商

韓國戰爭은 中共軍의 참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 예상외로 持久戰으로 전개돼 갔다. 이렇게되자 中共과 北韓을 대신하여 蘇聯의 「유엔」대표는 51년 6월 23일 駐韓外國軍의 철수를 前提로 하는 休戰協商을 「유엔」에 제안했다. 이미 戰爭이 1년이나 지속되자 美國의 여론도 변질되기 시작했다. 「트루만」美國대통령이 美軍의 韓國派兵을 결정했을때 美國의 일반여론은 贊81% 否13%로 韓國參戰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었다. 그러나 戰爭이 1년이 지나자 美國人들은 이미 戰爭에 염증을 내기 시작했다. 「태프트」上院議員은 韓國戰爭을 가리켜 「완전히 쓸모없는 戰爭」①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1952년 11월의 대통령선거에서는 韓國戰爭 종식이 선거이슈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共和黨후보 「아이젠하워」장군은 美國人들이 戰爭에 말려들었을 때 인내보다는 신속한 결판을 바라고 있다는 취약점을 파악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장군은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이전인 12월에 韓國戰線을 방문하는등 韓國休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公約했다. 「아이젠하워」는 이公約에 크게 힘입어 「아들라이 스티븐슨」民主黨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아이젠하워」장군은 公約대로 12월초 韓國을 방문했다. 그러나

李承晩 대통령이 統一없는 休戰은 반대한다고 완강히 버텨으로써 「아이젠하워」는 예상외의 休戰장벽에 부딪혔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는 선거공약에서 韓國休戰을 약속했을 뿐만아니라 聯邦政府의 赤字예산을 改善한다고 장담했었으므로 韓國戰 종결없이 그의 公約실천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려, 韓國休戰을 강행키로 했다.

「아이젠하워」大統領은 당선된 후 곧 臨時內閣을 조직하여 政權인수 준비를 속의하기 시작했다. 「아이젠하워」의 臨時內閣은 「트루만」行政府의 赤字가 대부분 韓國戰으로 빚어진 것이고 ② 그래서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韓國休戰이 반드시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결과 「아이젠하워」장군이 韓國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미 戰争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느냐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어떻게 이 戰争을 종식시키느냐는 데만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駐韓「유엔」軍사령관인 「마크 클라크」장군은 영문도 모르고 北進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부담의 개요를 준비해 두었으나 「아이젠하워」장군은 그런 점에 관해서는言及도 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아이젠하워」대통령 당선자는 極東에 수송된 탄약이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신경을 쓰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③ 그밖에도 「아이젠하워」대통령은 李承晩大統領이 그와함께 北進統一에 관해 자세히 얘기할 기회를 갖고자 노력했으나 그에게 그런 기회를 결코 허용치 않았다는 것이다. ④

일단 韓國 방문 중에도 休戰은 조속한 時日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재확인한 「아이젠하워」장군은 歸路의 「헬레나」艦선실에서 休戰전략을 숙의했다. 이자리에서 그는 共産軍이 休戰에 응하지 않으면 中共本土로 戰爭이 확대된다고 위협하는 것이 最上의 休戰전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⑤

「아이젠하워」의 이같은 休戰전략은 53년 1월 大統령에 취임하면서 부터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는 大統령 취임 연설에서 韓國戰의 早期休戰 성립을 위해 어떠한 武力이든지 필요하다면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고 2월에 들어와서는 大韓해협의 美제 7함대에 中國本土의 上陸도 감행할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했던 것이다.

「아이젠하워」대통령은 駐韓美軍의 兵力수준을 4.4만명에서 52만 5천명으로 증강할것을 승인했고 原子武器를 日本의 「오끼나와」로 前進배치토록 했다. 이어서 그는 「맥아더」장군이 시사했던 대로 만약 戰爭확대에 戰費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原子彈도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⑥

美國은 이처럼 共産軍에 심린적 위협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北韓의 灌溉시설을 집중적으로 폭격하여 농사를 망치게 하여 北韓의 戰意를 꺾었다.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이렇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있을때인 53년 3월 5일 蘇聯首相「스탈린」이 死亡했다.

「스탈린」의 死亡은 共産主義者들에게 心理的 불안을 초래, 休戰으로 한발자욱 더 가깝게 했다.

「스탈린」이 死亡한 3月末 中共은 休戰에 응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첫째 반응은 「클라크」장군이 金日成과 彭德懷 中共軍사령관에게 상례적으로 보낸 公翰에 그들이 회답을 보냈다는데서 나타났다. 이公翰은 1949년 포로대우에 관해 약정된 「제네바」협정 109조에 따라 負傷者와 病弱者들을 송환하자는 제의를 담았다. ⑦ 金과 彭은 그들의 3월 28일 回翰에서 負傷者와 病弱者들의 송환에 응할것과 이에 대한 合意가 休戰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비쳤다. 이같은 긍정적인 회답을 3개월전인 12월에 印度代表가 負傷者와 病弱者 송환을 제의했을 때 共產側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졌던 休戰協商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3월 10일 이번에는 周恩來 中共首相이 「스탈린」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온후 또 다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周는 本國歸還을 희망하는 포로들은 그들의 의사대로 송환하고 本國送還을 거부하고 捕虜地에 남기를 바라는 자들은 中立國委員團에 넘겨주도록 하는데 관해 協商하자고 제의했다. 周恩來가 協商하자고 제안한 그같은 내용은 이미 11월에 西方측및 印度代表에 의해 제안된바 있었으나 당시 周는 물론이려니와 「비신스키」蘇聯外相에 의해서도 거부된바 있다.

美國측은 애당초 이런점들을 共產側에 내놓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결과 4월 20일 「빅스위치」의 계기가 왔다. 板門店에서 최초로 6천 6백 70명의 共產軍 포로

와 6백 84명의 「유엔」軍 포로가 교환되는데 성공한 것이다. 나머지 일은 기술적으로 休戰協定文을 兩側이 어떻게 조정해 가느냐였다. 이윽고 만 3년 1개월간 밀고 뺏기던 韓國戰爭은 統一을 주장했던 李承晩대통령의 의사가 무시된채 7월 27일 休戰되고 말았다.

休戰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으려던 「아이젠하워」美國대통령의 休戰전략과 北韓南侵을 계기로 分斷된 國土를 다시 統一하려던 李承晩대통령의 目的은 서로 상치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李대통령은 1970년대 초반 「티우」越南대통령이 「파리」平和協商의 休戰을 반대했던 것과 같이 休戰協定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李대통령은 休戰協定체결의 代価로 對韓軍事및 經濟援助와 韓美相互防衛條約 체결을 요구했다. 「아이젠하워」대통령은 休戰의 代價로 이에 응하여 1953년 10월 1일 韓美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였다. 美議會는 이를 다음해인 54년 정식으로 承認하였다.

## II. 베트남 休戰協商

1968년 美國의 越盟목적이 중단되고 「파리」에서 共產측과 美國간에 平和會談이 시작되었다. 그후 4년 동안 「파리」平和會談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요즘 中東平和會談에서 「팔레스타인」解放機構인 PLO를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會談에서 하

나의 獨立당 사자로 취급할것을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때에도 越南측은 「베트콩」의 独立的 존재를 거부하였었다. 이때문에 탁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越南은 「베트콩」代表와 同一한 탁자에 앉을수 없다고 우겨대어 탁자의 형태를 놓고 「베트콩」측과 상당기간동안 신경전까지 연출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파리」平和會談은 72년 1월 「닉슨」美國대통령이 越盟에 제안한 平和 8개 항목으로 압축되고 만다. 이 8개항의 골자는 대략 다음과 같다. 兩側은 休戰協定이 조인되는 날 全「인도차이나」半島에서 체포된 포로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석방은 철군이 시작되는 날 시작해서 철군완료와 동시에 완결한다. 休戰에 兩側이 동의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駐越美軍 및 그밖의 聯合軍을 철수시키고 새로운 大統領 선거를 실시하여 현직 大統領은 선거가 실시되기 한달전에 사임키로 한다. 美國은 이기간 완전 中立을 지키고 선거는 國際機構의 감시를 받게 된다.

共產側은 이 8개항을 正面 거부하고 2월 3일 그들 나름의 유리한 方案을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美國은 軍事行動을 무조건 중지하고 무기 및 戰爭物資를 완전히 철수할 최종 일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티우」越南대통령은 즉각 사임하고 政治犯을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즉시 「베트콩」의 「臨時革命政府」는 憲法을 제정하고 확정적인 政府를 구성할 制憲議員 선거를 위해 越南政府와 三派聯立政府 구성에 관해 협

의를 개시한다고 했다. ⑧

· 共産側의 이같은 제의는 두말할것도 없이 당시 「티우」越南政權을 무너뜨리고 「베트콩」이 주축이 되는 臨時政府를 越南에 수립할수 있는 조건들에 지나지 않았다.

「파리」休戰協商의 당사자는 美國 越南 越盟 「베트콩」 4자였다. 그러나 協商을 주도한 것은 「키신저」美國무장관과 「레 독토」越盟外相이었다. 이 協商의 難題는 越南에 派兵돼 있던 7만명의 越盟軍 철수였다. 美國은 이들에 대해서는 모른척 묵과해두고 休戰協定을 성립시키자는 것이었고 「티우」政權은 이들을 休戰條約文에 철수한다고 明文化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티우」는 美軍이 철수한다면 越南內 越盟軍도 마땅히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美軍철수후 越南共産化를 노리고 있었던 越盟으로서는 「티우」政權의 그와같은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었다. 越盟은 越南에 越盟正規軍을 파견한 일이 없고 모두가 現地의 解放軍들이라고 잡아 베었다. 「파리」平和會談은 결렬상태로 빠졌다. 실상 7만명에 달하는 越盟軍의 철수를 묵인해주며 美軍의 철수만을 약속하는 休戰協定은 越南赤化의 길을 合法的으로 터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美國이 越南의 그러한 입장을 이해하고 越南의 주장을 받아들일느냐 아니면 休戰協定을 서둘러 체결하고 손을 베느냐에 달렸었다. 이 두가지의 선택중 美國은 후자를 택하였다. 「닉슨」



行政府의 사정은 바뀐기 때문이었다.

「닉슨」행정부는 68년의 大統領선거에서 前「존슨」행정부의 越南休戰 실패를 들고 나왔고 자신이 당선된다면 첫 임기안으로 越南戰을 종결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다. 마치 1952년 「아이젠 하워」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韓國戰線을 방문하고 休戰성립을 관철시키겠다고 公約과 비슷했다.

뿐만아니라 美國内の 反戰여론은 더욱 기승하기만 했다. 共產軍에 포로된 美軍장병들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美國 여론도 점점 날카로와 갔다.

「닉슨」행정부는 美國의 최대목표인 美軍포로의 귀환과 美國의 체면을 손상치 않을 선에서 駐越美軍의 철수 두가지만 달성된다면 休戰을 강행하기로 했다. 「티우」政權의 반대는 越南의 共產化를 막도록 보장한다는 公約으로 무마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편 美國 여론들은 「티우」를 부정부패 独裁 無能한 자로 공격하며 休戰의 조기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티우」政權이 越盟軍의 철수없는 休戰協定을 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다급해진 「닉슨」은 「티우」에게 親書공세를 폈다. 72년 12월과 73년 1월 두번에 걸쳐 「티우」대통령에게 위압적인 親書를 전했다. 이내용에 따르면 越南이 休戰協定을 거부하고 美國에서 떨어져나간다면 美國과 越南이 지난 10년동안 추구해 온

的에는 재난이 닥칠 것이며 越南이 생존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美國과 단결하는 길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닉슨」은 「장차 越盟이 休戰協定을 위반하면 美國은 모든 힘을 다해 대응할것 이라고 「티우」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73년 1월 23일 美國은 越南 越盟 「베트콩」대표 4자가 서명한 休戰協定에 假調印했다. 協定全文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越南과 「베트콩」은 休戰後 모든 軍隊 군사고문 무기 탄약 기타 전쟁물자를 越南으로 반입하지 못한다. ② 北緯 17도 非武凌 地帶를 존중한다. ③ 「라오스」와 「크메르」領土를 존중하고 그곳에서 外軍을 철수케 한다. ④ 美國은 越南政府에 대한 承認을 계속하고 無制限으로 경제원조를 계속할수 있다. ⑤ 美軍과 戰爭에 개입된 모든 外國軍隊는 調印 60일 이내에 그들의 基地를 폐쇄한다. ⑥ 越南은 憲法구조와 現在 대로의 지도체계를 보장한다. ⑦ 전통적인 美國外交에 의거 戰後에 全印支에 재건원조를 할수있다. ⑧ 戰後 美國은 越盟과 새로운 기초위에서 國家關係를 수립한다. ⑨ 「크메르」와 「라오스」에서의 軍事活動을 中止한다.

이상 요약한 대로 「베트남」休戰協定은 越南에 파고들어온 越盟軍의 철수를 목인한채 막연하게 「모든 外國軍」의 철수라는 대목으로 그쳤었다. 동시에 休戰協定은 ④ 「티우」政權을 계속 지지하고 越南에 無制限 경제원조를 약속해 주었다. 한편 休戰協定은 ⑦ 戰後에 全印支에 재건원조를 할수있다는 항목을 삽입시켜 越盟이 休

戰協定을 준수하도록 援助에 묶어 두려 했던 것이다. 그 대신 美國은 60 일내에 모든 外國軍 철수를 明文化하므로써 文書上으로나마 불명예의 철군을 피할수 있었다. 즉 休戰條約에 따라 철수한다는 名分이 서게 된 것이다. 포로교환의 問題도 明文化 했다. 協定에 따라 駐越韓國軍도 60 일내에 철군을 완료했다.

「키신저」美國무장관은 越南休戰에 즈음해서 休戰성립의 意義를 털어놓았다. 「우리가 이룩한 일은 越南에 殘存의 기회를 준 것이다. 오늘날 이런 殘存의 조건은 軍事的인 것이라기 보다 政治的인 것이다. 이제 勝敗는 政治對決로 越南에 맡겨졌다.」 「키신저」의 이같은 감상은 한장의 종이조각에 불과한 休戰協定을 共產越盟이 준수하리라는 幻想에 젖었던 美國의 어리석음을 반영한 것이요, 駐越美軍의 철수를 正當化하기 위한 궁색한 변이었다.

그로부터 2년3개월만에 越南은 政治的 對決에서가 아니라 軍事的 對決에서 越盟正規軍의 총공세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休戰協定의 白紙化였고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이 얼마나 무모한것인가를 실증한 또하나의 歷史的 증거였다.

## Ⅱ. 쿠바미사일協商

1962년 8월말 美國의 U 2機가 「쿠바」上空 14마일 높이에서 蘇聯의 地對空 미사일基地를 발견했다. 이어 42기의 蘇聯증거리

폭격기들이 「쿠바」의 空軍基地에서 포착되었다. 9월 중순 「존 F 케네디」美國大統領은 「쿠바」가 그런 공격무기를 장치했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으나 行政府內的 일부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否認하였다.

美行政府 관리들이 「쿠바」에 蘇聯이 地對空 미사일과 중거리 폭격기들을 배치할리 없다고 믿게된 때는 그런대로 근거가 있었다. 「니키타 후르시초프」蘇聯首相이 얼마전만 해도 美國의 中間선거해인 1962년에는 東西간의 긴장을 조성할 일은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떠들어 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미사일基地를 포착했던 10월 14일 U. S.는 「쿠바」에 1천마일의 사정거리를 갖고있는 미사일基地가 건설중에 있는 사진을 찍어냈다. 며칠후 2천마일 사정거리의 미사일基地가 또한 건설중임이 사진으로 확인되었다.

「케네디」대통령은 政治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共和黨上院議員들은 이미 蘇聯이 「쿠바」에서 수상적인 일을 꾸미고 있다고 경고하여 그비밀을 포착한 김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일부 上院議員들의 이러한 對「쿠바」경고는 61년「쿠바」侵攻 실패이후 잠잠했던 「쿠바」論爭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몰고왔다. 이때 선거는 겨우 3週를 남겨 놓고 있었으므로 「케네디」행정부는 「쿠바」內 蘇聯미사일基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케네디」대통령은 그에 대한 對策을 협의하기 위해 行政府 최고

책임자들을 불러 놓고 밤새도록 숙의하였다. 최종 대책으로서 미사일  
基地를 폭파하느냐 아니면 「쿠바」를 封鎖하느냐의 두가지가 제기  
되었다. 「딘 애치슨」을 비롯 「맥스웰 테일러」등 各軍司令官들은  
「미사일」基地에서 작업중인 蘇聯人들을 죽이더라도 그基地들을 폭  
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 볼」美國務省次官은 封鎖  
를 주장하였다. 封鎖나 폭격이냐의 兩論은 5일 동안이나 계속되다  
가 끝내는 封鎖키로 결정을 보았다. 「맥나마라」國防長官은 封鎖  
가 실패하면 그다음에도 폭격은 가능하므로 우선 封鎖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지하고 나섰다.

10월 22일 「케네디」대통령은 1개월 이상이나 비밀에 붙였던  
「쿠바」미사일 사태를 公表했다. 그는 蘇聯이 西半球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쿠바」에 미사일基地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쿠바」에 공격용 무기가 반입되지 못하도록 封鎖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쿠바」에서 西半球 어느나라를 향해서든지 발사된 미  
사일은 蘇聯이 美國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美國은 즉각 蘇聯  
에 보복을 가할것이라고 超強硬 태도를 취했다. 동시에 「케네디」  
대통령은 「후루시초프」에게 「유엔」감시하에 공격무기를 「쿠바」  
로 부터 제거할것을 요구하였다.

「후루시초프」는 이 요구를 받은지 4일만에야 긴 回翰을 보냈  
다. 여기서 그는 「쿠바」미사일 제거의 對価로 美國이 「쿠바」  
를 侵入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후루시초프」

는 다음날 두번째 書翰에서 美國이 「터키」에 설치한 「쥬피터」 미사일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케네디」는 「쿠바」不侵攻 약속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터키」 미사일 基地 제거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후루시초프」가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케네디」는 이틀후 「쿠바」内の 미사일 基地를 폭격할 출동준비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후루시초프」는 굴복하고 美國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쿠바」를 향하던 16척의 선박들이 蘇聯으로 船首를 돌려 물러가고 말았다.

이와같이 美國은 對共協商에 있어 그유례를 찾아볼수 없으리 만치 超強硬策을 썼다. 「쿠바」의 미사일이 西半球 어느나라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蘇聯에 依한 美國공격으로 간주 「즉각 보복」한다고 경고했다는 사실과 「쿠바」内の 미사일基地를 공격할 것 까지 결심했다는 것은 美國 자체의 安保가 걸린 問題에 있어서만은 일보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한 사례였다. 國共合作協商이나 「베트남」平和協商때에 보였던 나약한 태도는 찾아볼수가 없다. 다만 3次大戰을 불사한 強硬일변도 뿐이었다. 美國의 安全이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對共協商에 美國이 양보를 얼마만큼 하고 안하느냐의 문제는 그대상에 대한 美國 基本國家利益이 얼마나 깊이 개입돼 있느냐 않느냐에 달린다고 할수있다.

#### IV. 特 徵

##### (I) 選舉公約 -

休戰문제는 선거이슈와 직결되는 수가 많다. 韓國休戰問題도 「아이젠하워」美國대통령의 선거公約으로 등장되었다. 早期休戰이 그것이었다. 「아이젠하워」대통령은 당선된후 그의 선거공약을 실천에 옮기기위해 전념하였고 공약을 꼭지키려 했다. 「베트남」休戰協商도 같은 예였다.

##### (II) 選舉公約과 協商 -

「아이젠하워」美國대통령은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休戰成立을 서둘렀다. 李承晩대통령의 北進 요구를 묵살했으며 그代價로 韓美相互防衛條約도 체결해 주었다. 그대신 韓國休戰 협상에서는 共產側에 필요 이상의 양보를 하지는 않은것 같다. 美國의 基本國家利益이 韓國에 직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 (III) 休戰協商과 友邦 -

休戰을 協商함에 있어서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韓國休戰協商과 「베트남」休戰協商 둘이다. 韓國休戰協商은 美國의 基本國家利益이 직결돼 있으므로 共產側에 그렇게 치명적으로 양보를 하지못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는 美國의 基本國家利益이 직결돼 있지 않으므로 共產側에 크게 양보하고 물러나는 사례를 남기

었다.

#### IV. 超強硬 接近-

「쿠바」 미사일協商때 나타난것과 같이 美國은 對共協商에 있어  
서도 당면 利害관계가 美國의 安保를 직접 위협하게 되는 경우 超  
強硬 태도를 취한다. 3次大戦을 불사하는 그런 강경일변도의 태  
도이다.



## 第 四 部 結 論

### I. 合理的思考方式의 취약점

美國의 對共協商은 總괄적으로 보아서 成功보다는 失敗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理由로는 여러가지가 있겠다. 첫째 理由로서는 美國社會가 갖는 構造的 特性을 들지않을수 없다. 복합적 人種社會가 요구하는 遵法精神, 商去來倫理 발달, 合理的 思考방식등이 革命路線에 입각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戰術을 이겨낼수 없기 때문이다.

合理的 協商접근은 상대편이 合理的으로 대응할때만 효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나 상대편이 共產主義者들처럼 革命路線에 기초하여 기만전술로 나올때 合理的 協商태도는 자연히 벽에 부딪칠수 밖에 없다. 國共合作 協商과 「베트남」協商의 예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合理的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어찌할수 없는 사태라 하겠다.

### II. 相對便의 本質誤判

美國은 國共合作協商과 「베트남」 協商에서 처럼 상대편의 本質을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하였다가 協商에 失敗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中共과의 協商에서는 中共集團이 단순한 農業改革集團으로 誤判하였고 越盟과의 協商에서는 休戰協商만 文書上으로 체결해 놓으면 越南에 平和가 보장되는 것으로 착각 했다. 물론 1953

년 美國은 北韓 및 中共과 韓國休戰을 체결하여 「베트남」休戰協定이 체결되던 해인 1973년까지 20여년간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 나머지 「베트남」休戰도 그렇게 지켜질 줄로 믿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신뢰는 狀況판단의 잘못에서 출발한 것이다. 韓國休戰이 그동안 지켜진 것은 北韓이 休戰協定이라는 文書를 존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韓國軍과 駐韓美軍이 南쪽에서 강력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었다. 軍事力の 均衡유지라는 힘이 뒷받침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美軍이 越南에서 60일내에 빠져나오고 越盟軍은 現地에 그대로 도사리고 있도록 허락한 越南休戰協定은 赤化를 초래하도록 돼 있었다. 赤化가 아니면 적어도 수년내에 越南政權이 共產主義者들에 의해 잠식 내지는 붕괴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美國이 休戰協定을 不利한 條件에서 체결했다는 것은 상대편의 底意를 誤判한데 돌릴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상대편에 대한 誤判은 中共과 「베트남」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2次大戰中 東「유럽」의 自治權부여를 둘러싼 「스탈린」과의 協商에서도 그런 誤判이 드러났던 것이다.

### Ⅲ. 選舉意識

美國의 對共協商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執權者들이

선거를 크게 意識한다는 점이다. 「마샬」장군의 国共合作協商, 「아이젠하워」대통령의 韓國休戰協商, 「키신저」의 「베트남」協商등이 모두 美國内 選挙와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国共合作協商에서 「마샬」장군은 国府와 中共간의 聯立政權 수립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의 2년여 協商경험을 통해 感知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샬」장군은 2次大戰後 美國内의 反戰思想을 감안하여 결과야 어نگ든 国共간의 軍事的 분쟁만을 저지하는데 급급하였다. 다시 말하면 46년경 国府軍에 美國이 軍事원조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면 中共軍의 全大陸 석권은 예방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마샬」은 国府에 對한 군사지원을 동결하고 대신 中共과의 平和協商으로만 압력을 가하여 그동안 中共軍이 힘을 기르는 時間을 벌게 하였던 것이다. 美國内의 反戰무드를 고려, 戰爭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46년의 中間選挙와 48년의 대통령 선거를 「트루만」의 民主党政權은 의식했던 것이다.

韓國休戰協商은 「아이젠하워」의 事前選挙公約 이행을 위해 서둘러야 했던 事例中の 하나였고 「베트남」休戰協商은 事前 事後의 선거문제가 모두 걸린 대표적 例라 할 수 있다. 「아이젠하워」는 52년의 선거公約으로 韓國의 戰爭을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한다고 公約했다. 그리고 「닉슨」은 68년의 선거公約에서 「베트남」休戰의 조기달성을 기약했을 뿐만 아니라 72년 대통령선거가 다시 다가오자 그의 再選을 위해 休戰協定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

있던 것이다.

#### IV 協商과 友邦

美國의 對共協商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友邦을 희생시키느냐  
않느냐의 것이다. 國共合作協商에서는 蔣介石의 國府가 희생되었  
고 「베트남」休戰協商에서는 越南이 갔다. 그래서 越南赤化 이  
후 美國은 「못믿을 友邦」이라는 유행어가 「아시아」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美國의 對共協商에서 友邦이 희생되느냐 않느냐의 基本  
관건은 美國의 基本國家利益이 관련된 友邦에 직결돼 있느냐 않  
느냐에 좌우된다. 2次大戰後 美國은 두번에 걸쳐 韓國問題를  
놓고 對共協商에 임했었다. 두번다 美國은 韓國을 희생한 바 없  
다.

1946년은 美國에서 中間선거가 열리는 해였다. 이 中間 선거  
는 「트루만」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선거였다. 「루즈벨트」대통령  
死亡으로 대통령직을 선거없이 승계한 「트루만」으로서는 처음  
겪는 선거였으므로 그의 인기를 가늠하는 시험선거 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만」行政府는 蘇聯과의 「모스크바」  
3相會談에서나 서울에서의 美蘇共同委 協商을 통해 11보도, 양보  
하지 않았다. 駐韓美軍을 철수해야 한다는 蘇聯의 요구에도 不  
應하였고 韓國의 單獨政府 수립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北韓 및 中共과의 協商에 있어서도 「트루만」의 民主  
黨政權은 52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蘇聯이 제안한 駐韓外國軍 철수를 전제로하는 休戰條約을 완  
강히 거부하였고 우선 負傷者와 病弱者들을 먼저 송환하자는 決意  
를 굳혔던 것이다.

물론 「맥아더」장군이 滿洲를 폭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트루  
만」대통령이 묵살한 것이 선거를 의식한 것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筆者의 見解로는 「트루만」이 「맥아더」의 戰爭확  
대를 반대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당시 東北「아시아」  
를 둘러싼 美·蘇·中共의 세력 관계를 감안한데 연유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韓國과 같이 美國의 基本國家利益이 직접 얽혀있는 友邦  
에는 선거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무방하다. 1949년의  
駐韓美軍 철수의 경우와 같이 狀況 판단의 오류에 의한 실수를 범  
하면 범하였지 越南철군과 같이 의도적 포기 같은 것은 자행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마치 美國이 西「유럽」과 日本을 어찌  
한 對共協商에서도 희생의 제물로 바치지 않으려는 것과 비슷한  
관계라 하겠다. 다만 그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 V 超強硬態度

「쿠바」미사일 격돌 때 보인 바와같이 美國은 自國의 安保가 직

접 결릴때는 対共協商에 있어서도 조금도 양보하거나 상대편을 誤判하지 않는다. 3次大戦을 각오한 臨戰태세로 協商에 임하여 美國측 입장을 관철시켰다. 따라서 対共協商에 있어서도 美國이 상대편을 얼마나 신중히 다루고 성의껏 임하느냐는 문제는 美國의 基本國家利益이 協商대상에 얼마나 걸려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결론할 수 있다.

才一部 註

- ① Tang Tsou, America's Failure in China, 1941-50 (vol. 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63), p.401.
- ② ibid., 402.
- ③ ibid., 406.
- ④ Anthony Kubek, How the Far East Was Lost : American Policy and the Creation of Communist China, 1941-1949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1963), p.414.
- ⑤ Tang Tsou, American Failure, pp.414-5.
- ⑥ ibid., pp.427-8.
- ⑦ ibid., p.431.
- ⑧ ibid., p.434.

才二部 註

- ① Department of the Army, "History of USAFIK," MS, part V, Chapter 4, 88.
- ② Donald G Tewksbury Comp., Source Materials on Korean Politics and Ideology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0), pp. 77-78.

- ③ Fred Waner Neal, U.S. Foreign Policy and the Soviet Union (Santa Barbara: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tic Institution, 1961), p. 16.
- ④ George F. Kennan, American Diplomacy: 1900-5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p. 95.
- ⑤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8 and October 1, 1947.

才三部 註

- ① 拙著, 美国의 对韓政策 (1976, 一潮閣), p. 174
- ② Sherman Adams, Firsthand Report (New York: 1961), pp. 154-158.
- ③ Mark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4), pp. 230-234.
- ④ ibid., pp. 238-9.
- ⑤ Dwight D. Eisenhower, The White House Years, Mandate for Change, 1953-56 (New York, Doubleday, 1963), p. 96.



⑥ ibid., p.180.

⑦ Clark, From the Danube, pp.240-241

⑧ 抽稿, 「戦争終熄의 條件과 展望」 新東亞 (1972.7), p.124.

⑨ Elie Abel, The Missile Crisis (Philadelphia, 1966), pp.

63, 118-119.

## 要 約 文

第1部 「中共과의 協商」에서는 國共協商에서 美國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1945年 12月 「마샬」장군이 中國에 來到하면서부터 시작된 國·共協商은 초기 蔣介石의 國府軍이 軍事的으로 우세한 위치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南京에 中共의 協商대표로 나와있는 周恩來는 國府軍의 군사행동을 지연하여 時間을 벌려한다. 蔣介石은 이와는 반대로 速戰速決로 中共軍을 섬멸하려 획책하지만 「마샬」이 休戰을 蔣에게 종용한다. 蔣은 美國의 援助거부 압력에 눌려 中共과 休戰에 여러번 應한다. 國·共간의 軍事統合과 聯立政府 수립등 여러가지 合作을 시도하는등 時間만을 소모한다. 이기간동안 中共은 軍事力을 보강하고 지지세력권을 확대한 다음 國府側과의 協商을 단절하고 全面공세를 가해 全中國大陸을 석권한다.

「마샬」이 中共과의 協商에서 실패한 요인으로는 첫째 美國이 對外關係에서 美國특유의 사고방식과 理想主義를 쫓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合理的인 사고방식으로 革命戰線을 쫓고 있는 中共과의 協商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둘째 美國은 中共의 本質과악에 실패했다. 셋째 美國은 國內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國·共協商을 서둘렀다.

第二部 「對蘇統韓協商」에서는 1945年 12月 「모스크바」三相會議로부터 47年 韓國문제를 「유엔」에 제기하는 單獨政府를 수립하는 과

정을 기술한다. 韓國의統一 문제를 위한 美國의 對蘇協商에서는 國·共合作 協商때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다. 駐韓美軍의 철수를 주장하는 蘇聯의 요구를 반대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韓國의 安保에 저해요인이 될 요구는 적극 반대한다.

美國이 그렇게 對蘇 強硬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몇가지 理由가 있다. 첫째 美國의 基本利益이 韓國에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둘째 韓國과 같이 美國의 國家基本利益이 걸려있는 곳에서는 선거를 의식치 않고 對共協商에 임한다. 셋째 對蘇協商에서 美國이 蘇聯에 강경자세를 펴게 된것은 蘇聯의 의도를 2차大戰中 확실히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第三部 「休戰協商과 쿠바」에서는 韓國休戰, 「베트남」休戰 그리고 「쿠바」미사일 協商등의 특징을 각기 분석하여 비교한다.

韓國休戰協商에서는 「아이젠하워」美國대통령이 자기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두르긴 하지만 韓國의 安保가 해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끌고 간다.

여기에 비하여 「파리」에서 열린 「베트남」平和協商에서는 「키신저」美國務長官이 「닉슨」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달성하고 1972年の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協商을 강행한다. 美國은 결국 越南의 安全을 「파리」平和協商에서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美國은 1962年の 「쿠바」미사일 協商에서는 超強硬 태도를 취한다. 비록 3차大戰을 촉발할지라도 美國의 요구는 결코

양보할수 없다는 태도였다.

결국 美國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만다.

이와같이 美國이 越南은 對共協商에서 포기하면서도 韓國이나 「쿠바」미사일 協商에서는 共產側에 양보하지 않고 美國의 주장을 대략 관철하려 했던 것은 美國의 國家利益이 前者에는 弱했고 後者들에는 強하게 연결돼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結論적으로 美國이 對共協商에서 友邦을 희생시키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美國의 基本國家利益이 해당 友邦에 관련돼 있느냐 않느냐에 달린다. 따라서 對共協商에 있어 美國이 상대편을 얼마나 신중히 다루고 성의껏 임하느냐 않느냐의 관건은 美國의 基本國家利益이 協商대상에 얼마나 깊이 관련돼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